제 20 장 일본의 철학

1. 이토 진사이: 타자에 대한 감각

◇ 무릇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게 알지만, 남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하여 살필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남과 나의 사이가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마치 북쪽의 호(胡)와 남쪽의 월(越) 사이와도 같다. (…) 진실로 남을 대할 때 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어떠하고 그가 대처하고 행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그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고 그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삼아 자세히 살피고 헤아려야만 한다.
夫人知己之所好惡甚明, 而於人之好惡, 汎然不知察焉. 故人與我, 每隔阻胡越. (…) 苟待人, 忖度其所好惡如何, 其所處所爲如何, 以其心爲己心, 以其身爲己身, 委曲體察, 思之量之. 『語孟字義』「忠恕」

→ 주희로 대표되는 신유학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성(性), 즉 세계 본질을 응시하고 그것을 키워내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희가 강조하던 경(敬) 공부였다. 성(性)이 실현되기만 하면 우리는 타자와 아무런 갈등과 대립 없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희가 성(性)에 타자의 타자성의 계기를 모조리 환원시켜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는 주희의 생각을 일종의 유아론(唯我論)이라고 공격한다. 물론 이것은 그가 타자는 결코 나의 내면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토 진사이가 자신의 호를 교사이(敬齋)에서 진사이(仁齋)로 바꾼 것도 바로 이런 생각의 전이를 상징하는 것이다.

2. 오규 소라이: 유학을 정치 철학적으로 사유하다

◇ 공자의 도는 선왕의 도이다. 선왕의 도는 천하를 안정시키는 도이다. 공자는 평생 동방의 주나라를 만들려고 하였다. 그는 제자를 가르칠 때 그들 각각의 재질을 완성하여 장차 그들을 등용하려고 하였다. 마침내 제위를 얻지 못하자 그 뒤에 그는 육경을 편수하여 전하게 되었다. 육경은 선왕의 도이다. 그러므로 최근에 선왕과 공자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천하를 안정시키는 일은 수신을 근본으로 삼지만, 반드시 천하를 안정시키는 일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야 하니, 이것이 이른바 인(仁)이다. (…) 선왕의 도는 선왕이 만든 것이지 천지자연의 도가 아니다. 대개 선왕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덕으로 천명을 받아 천하를 다스렸다.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천하를 안정시키는 것을 임무로 삼았다. 그러므로 마음의 노력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이러한 도를 만들어서, 천하의 후세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이 어찌 천지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겠는가!
孔子之道, 先王之道也. 先王之道, 安天下之道也. 孔子平生欲爲東周. 其敎育弟子, 使各成其材, 將以用之也. 及其終不得位, 而後脩六經以傳之. 六經卽先王之道也. 故近世有謂先王孔子其敎殊者, 非也. 安天下以修身爲本, 然必以安天下爲心, 是所謂仁也. (…) 先王之道, 先王所造也, 非天地自然之道也. 蓋先王以聰明叡知之德, 受天命, 王天下.

其心一以安天下爲務. 是以盡其心力, 極其知巧, 作爲是道,
使天下後世之人由是而行之. 豈天地自然有之哉!『弁道』2-4

→ 정이(程頤, 1033-1107)가 유학이란 성인(聖人)이 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한 이래로, 모든 유학자는 자기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의 성인에는 정치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정치적 세계와 무관한 자기 만족적 윤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는 이토 진사이의 사유를 포함한 기존의 유학 사유가 모두 일종의 내성적인 수양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오규 소라이는 성인이란 기본적으로 세계를 안정시키는 정치제도의 창시자라고 보았다. 이 점에서 그는 성(性)과 위(僞)를 구분하면서 성인이란 작위의 존재라는 입장을 피력했던 순자의 생각을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규 소라이는 성인을 정치 세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질서의 근거로 승격시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오규 소라이의 이런 생각은 근대 일본의 천황제를 예비하는 논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14-1996)는 일본 천황제로 대표되는 일본 제국주의의 기원을 바로 이 오규 소라이로부터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3. 니시다 기타로: 대동아공영권의 논리를 정당화하다

◇ 금일의 세계를, 나는 세계적 자각의 시대로 생각한다. 각 국가는 각자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함으로써, 하나의 세계사적 즉 세계적 세계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금일의 역사적 과제다. 제 1 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세계는 이미 이 단계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런데도 제 1 차대전의 종결은 이런 과제의 해결을 남겨두었다. 거기에는 낡은 추상적 세계라는 이념 외에, 아무런 새로운 세계 구성의 원리도 없었다. 이것이 금일 또 세계대전이 반복되는 까닭이다. 금일의 세계대전은 철저하게 이 과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의 세계적 공간에서 강대한 국가와 국가가 대립할 때, 세계는 격렬한 투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과학, 기술, 경제 발달의 결과, 금일 각 국가 민족은 긴밀한 하나의 세계 공간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각자가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가 어디까지나 자기에 즉(卽)하면서도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의 세계적 세계를 구성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내가 현대를 각 국가 민족의 세계적 자각의 시대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각 국가 민족이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윌슨의 국제연맹처럼, 단순히 평등하게 각 민족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식의 소위 민족자결주의는 아니다. 그런 세계는 18 세기적인 추상적 세계 이념에 불과하다. 이런 이념에 의해서 현실의 역사적 과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임은, 금일의 세계대전이 증명하고 있다. 어느 국가 민족도 제각기의 역사적 지반 위에 성립하고, 제각기 세계사적 사명을 가지는 것이고, 거기에 각 국가 민족이 각자의 역사적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각 국가 민족이 자기에 즉하면서도 자기를 초월하여, 제각기 지역 전통에 따라서, 우선 하나의 특수적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어만 한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 지반에 의해 구성된 특수적 세계가 결합하여,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적 세계로 구성된다. 이런 세계적 세계에서는 각 국가 민족이 각자의 개성적인 역사적 생명으로 살아가며, 동시에 제각기 세계사적 사명으로서 하나의 세계적 세계에 결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적 발전의 종극(終極)의 이념인데, 하지만 이것이 금일의 세계 대전에 의해서 요구되는 세계 신질서의 원리여야만 한다. 아국의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이념이란 이와 같은

것이리라.「세계 신질서의 원리」

→ 1943 년에 작성된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1870-1945)의 글은 도조 히데끼(東條英機, 1884-1948)의 국정연설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른바 '전 세계가 하나의 집'이라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논리, 다시 말해 '동아시아가 함께 번영하자'는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의 논리가 일본이 자랑하는 철학자 니시다의 입에서 아름다운 논리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니시다의 입장은 '개체=전체'라는 파시즘적 논리로 전개된다. 이것은 각 민족이 자기에 **즉하면서** 자기를 초월하자는 논리로 표현된다. 각 민족은 자신의 한계를 긍정하고[개체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체에 복종해야 한다[개체로서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조선은 봉건적이고 미개발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식민지와 식민모국이라는 관계에 들어가 식민지라는 전체가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4.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 아직도 우리에게 철학은 1930 년대 서구의 근대문명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철학이 마치 고급문화나 교양으로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 철학은 삶을 낯설게 성찰하도록 하는 주체적인 자기반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입된 사유가 가져다주는 이질감으로부터 감각적인 낯섦만을 향유하고 있다.
→ 이 점에서 1920 년대와 1930 년대에 각인된 서구 문명, 나아가 철학에 대한 콤플렉스를 철저하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trauma)는 철저하게 의식하고 성찰할 수 있을 때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제시대에 일본의 영향으로 독일철학이나 관념론 철학이, 그리고 이어서 50 년대, 60 년대는 미국의 영향으로 영미 철학이, 80 년대 이후 맑시즘과 아울러 프랑스 철학이 수입되고 있다.
→ 모든 철학은 국경이나 언어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주장한다. 만일 수입된 철학이 우리 삶에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철학은 보편적인 사유 지평이라고 할 수 없다. 아쉬운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능동적 자세로 수입된 철학을 음미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 수입된 사유는 우리 삶을 낯설게 성찰하여 새로운 삶의 실천적 전망을 낳는 데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경우 수입된 사유는 본사와 대리점의 논리, 즉 중심과 주변의 논리에 흡수되어 버렸다.
→ 사유의 조류가 바뀌면 우리 지성계의 철학적 논의도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칸트, 비트겐슈타인, 맑스, 푸코, 데리다, 들뢰즈가 철저하게 우리 삶에 동화되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이란 구분은 제도적 산물에 불과하다.
→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은 동·서양이란 지리적 구분과 전근대·근대라는 역사적 구분과 아울러 철학과라는 제도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제도의 산물이다.
→ 철학과라는 제도에서 양산되는 서양철학은 결국 수입상이나 대리점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 동양철학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박정희 시대의 논리에 입각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동양철학은 반민주적인 통치이념의 반민주성을 일종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제도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이제 동양철학의 사유 전통을 비판적으로 독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낯설게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얻을 수 있다.